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축복(렘 강해 설교 39)

성경말씀: 렘45:1-5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고 은혜로 구출된 유다 백성의 행태, 이집트로 내려가 하늘의 여왕을 섬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의 합작품 이집트에서 살 길은 없다. 도피해야 한다.

바룩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들, 45장은 바룩에 관한 말씀, 36장 다음에 주어진 말씀(45:1과 36:1) 36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술하자 바룩이 기록하고 가서 낭독하고 결국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을 기록함, 바로 이 시점에서 45장이 나온다. 예레미야의 조수, 친구, 동역자, 바룩의 인생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축복> 바룩의 하소연, 하나님의 말씀(2-3절), 화, 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지쳤음 하소연의 원인

1.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음
2. 심판의 말씀이 너무 가혹함, 도시와 성전 파괴, 칼과 기근과 역병, 포로 생활
3.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자기를 죽이려 함
4. 왕이 두루마리를 찢음,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하고 몇 달 걸려야 완성되는 일
5. 어쩌면 둘째 두루마리를 만들 때 임함, 너무 힘이 들어 쉬려고 하나 설 수 없음.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라 낙심하였음(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바룩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오늘 아침 우리도 다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직업, 결혼, 아이들, 부모, 학업, 성적 정체성, 교회 정착, 교리 문제, 목사의 문제, 성도의 문제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고통을 잘 아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시다(히4:15).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하소연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바룩을 보라. 있는 그대로 하소연하고 있지 않은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사랑하신다. 위선 배제

하나님의 대답

“며칠 푹 쉬어라. 좀 더 쉬운 사역을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전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그러나 하나님은 하소연하는 자신의 종에게 “너를 위해 큰일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다(5).

“바룩아, 네 문제는 이기적인 마음에 있다. 네 말을 보렴. 다 너와 상관이 있지 않니?”

내게 화, 슬픔, 고통, 탄식, 쇠약, 안식이 없음, 지쳤음

그리고는 이 모든 어려움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니?(3).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자 자기의 문제만 크게 보임, 어려움이 닥치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아야 함.

바룩이 원하던 큰일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명문가 출신, 할아버지 마아세야는 요시아 왕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자(대하34:8) 그의 형제 스라야는 고위 관리(렘51:59), 그런데 지금 그는 예레미야 옆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음, “이게 도대체 뭐야, 나도 귀족이고 한 자리 할 텐데. 주역인 대언자도 아니고 겨우 조수 노릇을 하고 있다니.”

그는 자기만 바라보고 이웃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4-5).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너는 지금 네 안위만 생각하냐?

네 주변의 일가친척과 이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텐데 너는 네 일만 생각하냐?

한국의 교회들이 썩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보라”

네 자신을 죽여라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일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일들을 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큰일들을 하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사6:8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만 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곁다리로 조금은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바룩의 문제: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

잘하다가 내게 영광이 안 되면 다 그만두려는 마음이 생긴다. No!

이런 사람들의 특징: 큰일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큰일만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는다.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주차 안내 관리, 주방 일, 설거지, 옥상 관리,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함 리더는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작은 일부터 성실히 하다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큰일만 하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5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자기를 죽여야 한다. 예수님의 표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침례자 요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표현(롬6:6-7, 11; 고후5:15)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충고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5).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바룩의 일생: 예레미야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땅을 구매하는 일을 다 처리함(32:11-16).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의 말들을 구술할 때 그의 곁에서 기록함(36:4).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직접 선포함(36:8-10)

왕이 잡으려 할 때에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함(36:19, 26).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감(43:6).

백성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함(43:3).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리더와 리더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 이름은 리더가 나지만 조력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리더가 일을 하는가? 다윗은 위대한 사람, 그러나 그를 돕는 장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장수들의 이름을 성경에 넣는다(삼하23:8-39, 대상

11:10-47), 세 용사 이야기(삼하23:13-17, 대상11:15-19)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 이후에 다른 목사가 와도 마찬가지, 리더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산다. 주님의 일이 흥왕한다.

조력자는 리더로 인해, 개인적인 야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바룩의 경우 늘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누가 살려주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5).

하나님이 그를 위해 큰일을 하셨다. 마6:33-34,

지난 20년을 회고하면서 바룩은 45장을 순서를 무시하고 맨 뒤로 넣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늘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 렘39:18의 에벳멜렉

우리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

요일5:11-14